

會長
法話

가족의 유대(紐帶)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참외를 먹으면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리와 자유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칫 규칙이나 법칙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또 종교에는 계율이 있는데 일반 사회의 규칙보다 엄격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간의 규정이나 규칙도, 종교에서의 계율도 모두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이 교통규칙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 녹색 신호라면 대부분 안심하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빨강 신호를 무시하고 다급하게 건너려고 할 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갑자기 자전거나 자동차가 오지는 않을까」 하며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지요? 아무래도 역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마음도 편합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생각되는 일이나 속박처럼 느껴지는 일도 사실은 모두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절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편해질 것입니다.



공경과 사랑의 끈을 잇는다

「효」라는 글자는 또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등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동양 사상에서는 그 관점에서 「나의 행복은 선조가 물려준 은혜, 자손의 화복은 내가 평생 살아온 발자취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

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식과 손자와의 관계를 관할 때 우리는 감은보사(感恩報謝)의 마음을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핵가족이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3대,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얻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은 세상의 축소판으로서 좋은 면이 있는 한편으로 대가족이라면 그만큼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번거로움이 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가 정고□라고도 말합니다만, 가정 내의 번거로움이 인간을 적절하게 단련시켜 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잔소리꾼이라고 생각되는 조부모와 부모, 혹은 외계인처럼 생각되는 자식이나 손자와의 일상은 자신과 전혀 다른 감각과 세대를 이해하는 훈련으로, 거기에서 맛보는 번거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의 「모든 친구가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는 날이여, 꽃다발을 사서 아내와

가까이 지내리」라는 노래처럼,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씁쓸한 심정을 받아주는 것도 가족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가족끼리 서로 연마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이어가는 공경과 사랑의 끈이 「가족의 유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배려와 감사로 가득 찬, 예를 들어 남편은 매일 성실하게 독경공양을 하고 아내는 부드러운 말로 가족을 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유대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는 가족이 아니면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회의 각 교회에서도 제각기 지역공통체의 핵으로서 승가는 물론 이웃 사람들과의 사이에 배려의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분을 찾아가는 「우애(友愛)방문」과 같은 활동은 사람의 고립화를 방지하여 몸과 마음을 구제하는 보살행이며 그곳에 맺어지는 것은 안심이라는 유대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러한 행위는 곧 자비의 실천임에 틀림없습니다.

『佼成』 2012年7月号

본회에 대하여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개조 니와노니교, 협조 나가누마묘코에 의해 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의 경전으로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려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니찌꼬회장과 함께 저희들 회원은 불교도로씨의 포교전도에 힘쓰며,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손잡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Tokyo, Headquarters

RKI of North America

- Vancouver, Canada
- Seattle
- Klamath Falls
- San Mateo
- Sacramento
- San Jose
- Colorado
- Denver
- Chicago
- Dayton
- New York
- Oklahoma
- Tampa Bay
- Dallas
- San Antonio
- Hawaii
- Kona
- Mauai
- San Diego
- Las Vegas
- Arizona
- Sao Paulo, Brazil
- Mogi das Cruzes
- Sao Miguel

RKI of South Asia

- London, The United Kingdom
- Geneva, Switzerland
- Venezia, Italy
- Kathmandu, Nepal
- Lumbini
- Delhi, India
- West Delhi
- Kolkata
- Colombo, Sri Lanka
- Kandy-Wattegama
- Polonnaruwa
- Habarana
- Galle
- Chittagong, Bangladesh
- Dhaka
- Mayani
- Patiya
- Domdama
- Cox's Bazar
- Satbaria
- Laksham
- Raozan
- Chendripuni
- Ulaanbaatar, Mongolia
- Sukhbaatar
- Sakhalin, Russia
- Seoul, Korea
- Pusan
- Masan
- Shanghai
- Taipei
- Taichung
- Jilung
- Tainan
- Pingtung
- Hong Kong
- Singapore
- Bangkok, Thailand
- Sydney, Australia

SHAN-ZAI 2012年7月号 (Vol. 82)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本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shanzai.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中村悦子 編集スタッフ: 松岡志帆・工藤友紀乃・齋藤華央留・江藤真弓・鈴木佐祐里・金尾江利子・牧野江身・野川友里江

このニュースレターは、「日本語版」「英語版」「中国語版」「ポルトガル語版」「モンゴル語版」「タイ語版」「ベンガル語版」「ヒンズー語版」「ロシア語版」「マケドニア語版」がございます。また、号によってはその他の言語版が発行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ご意見・ご感想・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ご遠慮なく上記の連絡先までお寄せください。 ※二次使用をされる際には、国際伝道本部までご連絡ください。